

07/03/22 케어 모임

1) 기도로 시작합니다.

2)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0:16-23)

- 16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 17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 18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 19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 21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 22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 23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뱀처럼 슬기롭게, 비둘기처럼 순진하게

질문 1)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질문 2)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떻게 말할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압박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3) 기도제목을 나누고 마무리 기도로 마칩니다.